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내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꼭 찾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못 보던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도 내일도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세세한 인간 사회, 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기에 그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 잠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꼭 알아둬야 할 문제가 바로 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고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이 각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벌어졌고 바로 상대가 생겼고 고통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살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인과로써 업보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속명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전부 알아야 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속명통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지은, 아는 그 모두가 여러분이 사는 대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이 된 그 자체가 현실로 나오는 거고 지금 사는 것이 미래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마음으로써 전달을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가 없음을, 또는 사발점도 종점도 없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바로 그 도리를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몸 바꾸기 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에 고달리면서 인과성이라든가 또는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또는 영계성이라든가 오간지옥성, 모든 그 죄업이, 즉 말하자면 고(苦)덩어리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온 자리에서 다시 도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세트나 그런 테두 노래를 입력해 놨다고 합시다. 그게 만약에 죄업이라면 다시 죄 없는 마음을 입력해 놓는다면 그 앞서 입력된 건 다 소멸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죄 불을 자리도 없고 병 불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불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관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것을 때 놓지 못하죠. '이럴 것

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저러하는 것은 안 되지. 이력하는 것은 잘될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습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유교로서, 불교의 진짜 뜻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탓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고 지금 현실의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지 못하는 그 습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판 데는 강당도 그렇게 좋은데 한인 교포들의 강당은 그렇게 험하고, 즉 말하자면 떨어진 옷과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데 뭉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서 덕도 못 보고 빛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게 그렇고, 앞서의 역사를 가져온 것도 불교를 모르는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정부에서 불교 탄압을 하고 유교로서만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자유스럽습니다.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요?

마음은 천만 가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생각한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모르고 가는 일은 자기 몸뚱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와 같고 자기 마음은 운전수와 같고, 마음이 있기 이전은 기름과 같아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니까 운전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수가 기름도 넣고 차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돌아가는 데 중심, 불교가 어떤 것이 불교인지 아십니까? 불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그릇, 흙 한 줍 또는 불 한 개비, 모든 게, 바람이나 이런 것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근본이, 이 세상 근본이 우주의 근본에 속해 있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에,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이 세상만사가 다 우리 인간의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지만 회사에 가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말도 할 수 있고 또

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움직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이 움직여지고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살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뚱이가 뼈는 아버지의, 살은 어머니의, 즉 부모의 정자 난자에서 배출된 그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뭉쳐진, 간단히 따진다고 하더라도 10억이나 13억이나 16억이나 되는 생명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헤아릴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의식 하나가 생각하는 데도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봐도 우리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운행을 해 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산다고, 내가 산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고, 천년 만년 살 듯이 말입니다. 남이 그랬으면 남이 망하게 했다고 하고 남의 탓 하고 남을 원망하고, 한 식구에게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항상 악의적인 말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식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또

는 남편을 모시거나, 여러분한테 사대 성인들이 가르쳐 준 것은 자비한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해서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바로 나의 그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면에 여러 의식들이 있는 그 자체를 한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릇대를 바로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한마음 주인공이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자식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속이 상하더라도 거기다 한번 맡겨 놓고서 부드러운 말로 또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조화를 이룬다면 화목하고 너무나 복이 들어오고 공덕도 받을 수 있고, 아주 화합도 되죠. 웃는 얼굴에 돈이 들어오지 아주 그냥 악의적으로 나가는 데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좇아가면 돈이 달아나가요. 우리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돈이 오게 하고 자동적으로 선의적으로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50%의 무의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50%의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50%를 같이 쥐고서 우리가 중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쫓아 쫓아 줍니다. 아,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느끼며 또한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신 그 뜻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단단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불제자라고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모르다면, 즉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전달을 했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늘이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도리도 배울 거지만 바로 무심 축지법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원자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바로 분자가 화해서 이 세상을 두루 하면서도 세가지로 나누어서 통신, 결정, 들이고 내는 작업 이것을 바로 내 몸속의 그 의식들이 나가서, 3피터 이상은 안 되지만 나의 3피터 내의 모든 보호를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육성뿐만이 아니라 저 지구나 어떤 육성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구에 바로 주인들이 살기 때문이고 생명들이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하며, 불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

26면으로 계속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44cm × 72cm)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 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神通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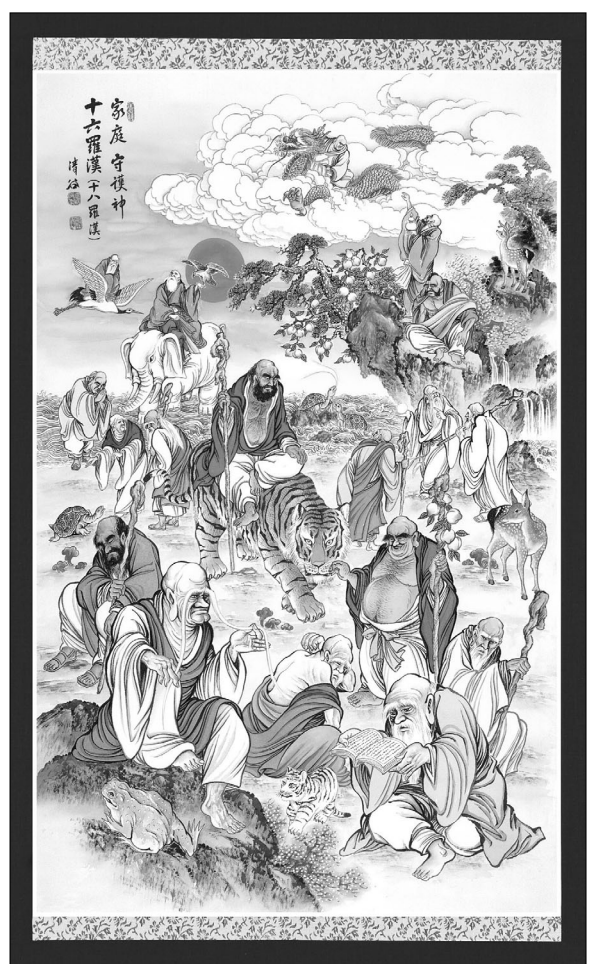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 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황정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재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재는 족자 완성품임.)

마음은 체가 없기에 헤아릴 수 없이 화할 수 있어!

25면에서 계속

땀을 흘려서라도 하겠습니까. 불교라는 그 하나의 뜻, 불교! 불교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포함된 그 하나의 생명을 말한 거고, 한울을 받친 바로 그 불기둥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한울을 받칠 수 있는 불바퀴와 같다, 불기둥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달 없이 전달되고 말 없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불교는,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구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살면서 너무나 피로가 많고, 가난과 병고와 우환과 그 모두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 다.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실험한다면,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발견을 해서 돌아 안 도리를 또 알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초월했다면 바로 우리가 나뉠을 알기 위해서 또 한군데로 모으고 또 말하고, 그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여러분은 게을리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마음선원에서는 형상을 믿 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 고 한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여러분 마음, 마음 있기 이전 영원 한 생명의 근본, 불성, 이것이 포함된, 부와 자가 한데 합쳐진 자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생각을 내면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을 보현 신, 찰나에 바뀌진다고 해서 이거를 화신이라고도 하고 보현이라고도 합니다. 문수는 법입니다. 법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법신이라고 하고, 마음 내는 것을 법신 이라고 하고 문수라고도 합니다. 또는 움직 거리는 것을 바로 보현이라고도 하고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관해 보고 관 해 듣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보십시오, 관세음이라고, 판 데로 관세음을 찾고 부르고 그래서 그 음파 가 방귀 귀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 어지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면의 그 관세음 이 바로 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사실 수 있다면 그릇을 비우는 거죠.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들 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거나 가난

이 있다거나 우환이 있다거나 유전성이 있다거나 명이 짧다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한다면 그 몸속에서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고가 얼마나 많이 들추성거리겠습니까. 그저 봤다 하면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 오해 를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남은 생각지도 않은 거 를 누가 말 한단디 해 주면 또 오해가 됩니다. 그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우야 할 텐 데,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일일이 꼬나드는 게 이요. 들으면 듣는 대로 일일이 꼬나드는 거. 이 습관성을 좀 더 놓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면 잘못 든 모든 게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몸속에서 병고가 있다면 여러분 이 거기다 놓고 '아, 내 한마음의 주인공 속 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속에서만이 고칠 수 있어.' 하고 믿을 때 바로 약사가 되는 것 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도 거기서 나온 거니 까, 과거로부터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밖 엔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 봤을 때 바

울 때 재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똥 누고 밥 먹고 아프고 죽고 자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실험 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어떤 큰일이, 자갈밭이, 가시밭이 닦쳐온다 한다면 그거를 커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 니다. 여러분이 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보 신이 되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약사가 되고 그레까지, 어디에 기대고 노예가 될 것 입니까? 어디를 믿고 그렇게 기대야 할 것입 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모르시면 죽어서 도 그 차원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모습이나 가 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하게 되는데 그 고를 어떻게 면하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 음 자세의 뜻을 알아서 배우시라는 얘기도, 부처님도 그렇게 당시에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 이름대로 그렇게 많고 그러신가?' 하고 모르시걸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어 보십시오, 남편이라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으니 모두가 돌이 아니니라. 돌이 아닌 도리를 안 다면 돌이 아니게 나누는 그 경지에 이르느 니라. 그 경지는 바로 열반이며 구경의 경지 에 이르면 구경각지를 얻으리라. 이름 없는 구경에 이른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이르러 야 아늑다라삼막삼보리, 이름 없는 거기까지 이른다. 부처는 중생 속에서 나왔고 중생은 부처 속에서 나왔으니 그 돌이 아닌 도리를 알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 갈 때 여러분이 꼭 알아 둬야 할 것이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는 거, 자기로부터! 자기부터 알아야 겠다는 거, 그리고 종교를 믿을 때만 데다가, 고상을 걸어 놓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시여!' '월성님이시여!' '독성님이 시여!' '신중님이시여!' 온통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안 놔두고 '아이고, 이거 한 군데 안 놔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고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어찌나.' 하 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게 습입니 다. 조선시대 때서부터 그렇게 탄압을 해 왔

산 사람이나,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생각 이 있는 사람이나 다 건져 주시는 그 지배. 그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삼라대천 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불바퀴가 더하고 덜함 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려게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이 되니까 이것은 습관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하는 그러한 그 걸림 때 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 까?' 이러니까 그것이 활이 제대로 쏘아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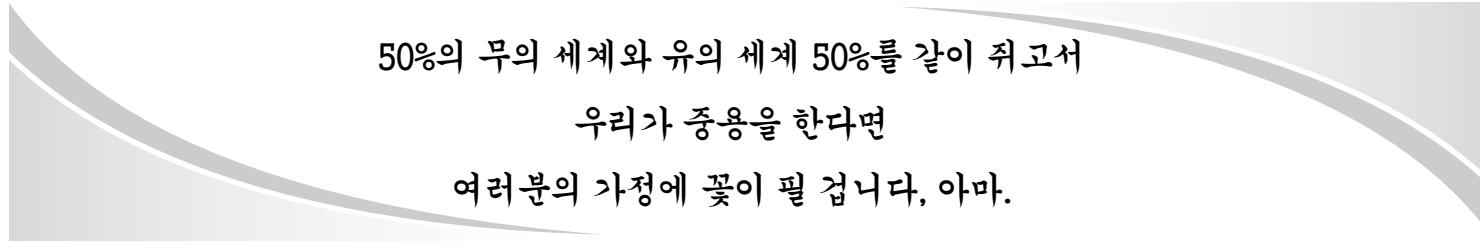
질문자(여) 스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 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스님을 친견은 못했지 만 스님의 책을 보고, 제가 평소애 특별히 크 게 읽는 책은 없지만 항상 몸이 뭔가 췌 편안 하지 않았는데, 스님의 소식을 듣고는 '아, 이제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 길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길이 있 을 겁니다. 허허하...

질문자(여) 그리고 제 주위에 굉장히 편 찰으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시지는 못하셨는데요, 가서 스님을 친견을 하면 이분들이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 십사 하고 간곡히 청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스님의 눈이 저를 쳐다 보실 때 스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하 고 눈이 마주칠 때 머리가 주눅하게 아주 정 말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버릇없는 짓 같지만 계 속 스님을 주시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시선 이 또 저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격 이 마음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의리 있고 착하다면 그 옆의 사람도 아마 보살님이 병 고를 낮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그 걸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 러니 여러분이 '너는 죄가 있으니까, 잘못하 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됩 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 니라 무조건 병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중생은 모두 자비로써 그대로 그냥 무조건, 이익 한 걸로만 건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 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가 있 다면 모르는 게 죄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아시도록 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3월 16일 뉴욕지원 법 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 관세음 행을 하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을 하는 데에, 실천을 하는 데에 실상으로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지, 부처님께서 업으로 이름만 부르고 외치 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명이 짧 을 때에 '아, 명이 짧는데 명을 좀 길게 하 는 것도 너무에 없지.' 할 때 바로 그것은 칠 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못 낳아서 애 슬 때는 바로 삼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 리 부모가 좋은 데로 가고 나도 아프지 않고 웃을 잘 벗고 그냥 가야지.' 할 때에 바로 지 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이 부처님의 이름이죠. 부처님이 마음으로 그런 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죠. 마음으로 지어 놓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 죠, 자연적으로, 동방에는 아축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돌아서 동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미륵이요, 서방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지 어 놔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놔고 말 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 름이 된 것이니 이름 아닌 진짜 지장이 되고 약사가 되고 전부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고난을 여기 가지고

는 이름과 아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아 들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이 름, 엄마라는 이름 또는 아빠라는 이름, 형이 라는 이름 아우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여하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방 "여보!" 하면 아내가 되시죠? 그거는 뭐가 옆에 붙는 게 아 니고,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 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누르고 하는 것도 아 닙니다. 자동적으로 아내가 됐다 엄마가 됐다, 남편도 됐다가 바로 아버지도 됐다가 이 려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세 요, "엄마!" 하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야, 그 뜻도 말도 행동도 전부 엄마로 돼 버리죠. 그랬 는데 남편이 "여보, 지금 들어왔어." 하고 들 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거는 찰나에 없어 지고 벌써 아내 행동과 아내 말과 아내 뜻이 그대로, 그대로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적으로 되지 않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자동 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가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부처님이 얼마나 이름이 많았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삼천대천세계에 어느 거 하나 나 아님이 없 고 내 이름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고

고 그래서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빌게 한 자체는 바로 승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공부 를 못 하니가 여러 군데 그것을 해 놓고 그런 게 했던 것입니다.

밝고 밝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인공위성이 오르고 또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두루 하 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 이, 그렇게 한생각이 중요하고 보배라는 걸, 이 세상을 다 쥐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걸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 헤아릴 수 없이 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쓰레기통 에 쓰레기를 버려서 뚜껑을 닫아 놔다가 열어 보면 그냥 생명들이 우루루루 나옵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선 한생각이 원자에서 입 자가 그렇게 많이, 입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많 이 화해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 습니다. 그 반면에 부처님의 눈도 손도 부처님 의 그 이름도, 부처님은 어느 곳에 안 계신 데 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죠.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나, 죽은 사람이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 지찬스님과 차차호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이따가한 고민거리라도 OK!
부처님과 썸타고 있는 불자들의 이야기기도 OK!

사연접수 | 메일 : post@btn.co.kr | 전화 : (1부) 02-3270-3438 | (2부) 02-3270-3429